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3, pp. 127-133,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3.127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자가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융합적 연구

김민아[1], 김효진[2*], 이연경[1]
[1]송호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2]경동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Convergence Study on the Employment Stress and Self-rated Oral Health Status in University Students

Min-A Kim[1], Hyo-Jin Kim[2*], Yeon-Kyoung Lee[1]
[1]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ongho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yungd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자가구강상태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 361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2일부터 27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는 SPSS 2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자가구강건강상태의 비교 위험도는 잇몸부종 1.7배, 궤양 1.46배, 지각과민 1.53배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성별,나이,학년,전공)을 보정한 후 비교위험도는 잇몸부종 1.56배, 궤양 1.42배, 지각과민은 1.44배로 나타났다. 이에 취업스트레스는 구강건강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상담지원이나 스트레스 조절법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구강건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주제어 : 대학생, 구강보건, 취업스트레스, 융합, 잇몸부종

Abstract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self-rated oral health status in university students from Sep. 2 to 27, 2019.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In case of high employment stress, the comparative risk of self-rated oral health status was 1.7 times in Gingiva swelling , 1.46 times in ulcer and 1.53 times in hypersensitivity. After correct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age, grade, major), the comparative risk was 1.56 times for Gingiva swelling , 1.42 times for ulcer and 1.44 times for hypersensitivity. Therefore employment stress was found to be related to oral health and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find ways to prevent and manage oral health by seeking various methods such as counseling support or stress control to reduce employment stress.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Oral Health , Employment Stress , Convergence, Gingival swelling

1. 서론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1]. 보건학적 측면에서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안정이나 다른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큰 불편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긴장 유발하는 요소를 의미한다[2]. 대학 시기는 진로 선택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및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Songho University in 2019.
*Corresponding Author : Hyo-Jin Kim(i252hj@kduniv.ac.kr)
Received January 30, 2020 Revised February 28, 2020
Accepted March 20, 2020 Published March 28, 2020

취업 준비로 인하여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3]. 대학생활은 학업의 양과 질, 학습 방법에서 청소년기와 많이 다르며 이성과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과 학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해 진로를 개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자발적 활동으로 생활의 다양성이 생길 수 밖에 없은데 이러한 환경변화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한다[4].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직, 간접적으로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직접적으로는 호르몬의 영향을 주어 생리적 변화를 가져오고 간접적으로는 구강위생불량 및 음주와 흡연을 증가시켜 구강조직의 감수성을 증가 시키는 위험요인을 가져올 수 있다[5,6]. 또한 구강건강은 성별, 연령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스트레스 수준과 같은 심리적 요인, 구강건강 행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7]. 대학생들은 미래를 위한 취업에 다양한 노력과 관련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주로 경험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는 학업과 취업스트레스이다[8]. 취업을 하기 위해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하여 신체적기능이 떨어져 다양한 구강질환이 생기기 쉽다[9]. 이 시기의 구강건강을 악화시키는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4,5,7,8,10] 스트레스가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취업스트레스와 구강질환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거나 한정적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스트레스가 구강건강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구강건강을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9월 2일부터 27일까지 일부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층화추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로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자기 기입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다. 최종 분석 자료는 총 369명의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자 8명을 제외한 361명을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방법

일반적 특성은 4문항으로 성별, 연령, 학년, 전공계열(인문사회, 자연의학, 공학예체능)이며 자가구강건강상태는 6문항 , 취업 스트레스는 하위변인(학업 6문항, 성격 5문항, 가족환경 6문항, 학교환경 6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1 자가구강건강상태

자가구강건강상태는 지난 6개월 동안 본인이 인지한 구강건강문제를 의미하며 스트레스와 구강질환과 관련된 선행연구[5,8,10]를 고찰하여 선정하였다. 주관적인 구강건강인식과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연관성이 있다는 여러 보고가 있었으며[9,11]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인식에 대한 자가구강건강상태를 평가하였다.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출혈, 잇몸부종, 턱관절 장애, 궤양, 치은퇴축, 지각과민을 조사 하였다. 설문 문항은 김과 이[11,12]의 설문 내용 중 본 연구에 부합되는 문항을 선별하여 연구내용에 맞게 수정, 보완 하여 증상이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예', 불편함이 없는 경우는 '아니오' 로 하였다.

2.2.2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문항 평가방법은 학업, 성격, 가족환경, 학교환경으로 4개영역으로 구성하여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측정도구는 황과 강[13,14]의 설문지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측정결과 Cronbach's =.952 , 타당도 KMO = .944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구강건강상태는 교차분석(χ^2-test)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는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자가구강건강상태와 취업스트레스는 교차분석(χ^2-test) 및 t-test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취업스트레스가 자가구강건강상태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구강건강상태

성별에서 잇몸부종, 턱관절 장애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여성에게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연령은 22~24세에서 출혈, 잇몸부종, 턱관절 장애, 궤양, 치은퇴축이 많이 나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학년이 높아질수록 잇몸부종, 궤양, 치은퇴축, 지각과민이 많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출혈, 턱관절 장애, 궤양이 많이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는 성별에서는 여성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년에서는 3학년, 전공은 자연의학계열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의 하위변인에서 학업, 가족환경 스트레스가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학년에서 하위변인 성격 스트레스가 3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Table 2

3.3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취업 스트레스에 따른 자가구강건강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는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에서 출혈, 잇몸부종, 치은퇴축, 지각과민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취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잇몸부종과 궤양, 지각과민이 있으며 이 중 잇몸부종이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Table 3

3.4 취업스트레스와 자가구강건강의 관련성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자가구강건강상태의 비교위험도는 잇몸부종 1.7배, 궤양 1.46배, 지각과민 1.53배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이 안좋다는 것이 비교위험도 1.5배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또한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후 분석한 결과 자가구강건강상태의 비교위험도는 잇몸부종 1.56배, 궤양 1.42배, 지각과민은 1.44배,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이 안 좋다는 것은 1.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1. The self-rated oral health statu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Bleeding		Gingival swelling		TMJ disease		Ulcer		Gingival recession		Dentine hypersensitivity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Gender	Male	47 (44.3)	59 (55.7)	12 (11.3)	94 (88.7)	34 (32.1)	72 (67.9)	43 (40.6)	63 (59.4)	17 (16.0)	89 (84.0)	50 (47.2)	56 (52.8)
	Female	116 (45.5)	139 (54.5)	77 (30.2)	178 (69.8)	111 (43.5)	144 (56.5)	121 (47.5)	134 (52.5)	54 (21.2)	201 (78.8)	144 (56.5)	111 (43.5)
		.908		.000***		.046*		.247		.310		.132	
Age	19~21	41 (34.7)	77 (65.3)	17 (14.4)	101 (85.6)	38 (32.2)	80 (67.8)	42 (35.6)	76 (64.4)	13 (11.0)	105 (89.0)	53 (44.9)	65 (55.1)
	22~24	111 (50.2)	110 (49.8)	68 (30.8)	153 (69.2)	101 (45.7)	120 (54.3)	114 (51.6)	107 (48.4)	52 (23.5)	169 (76.5)	128 (57.9)	93 (42.1)
	≥25	11 (50.0)	11 (50.0)	4 (18.2)	18 (81.8)	6 (27.3)	16 (72.7)	8 (36.4)	14 (63.6)	6 (27.3)	16 (72.7)	13 (59.1)	9 (40.9)
p		.022*		.003**		.024*		.013*		.014*		.064	
Grade	1	29 (34.1)	56 (65.9)	9 (10.6)	76 (89.4)	27 (31.8)	58 (68.2)	23 (27.1)	62 (72.9)	9 (10.6)	76 (89.4)	31 (36.5)	54 (63.5)
	2	42 (43.8)	54 (56.3)	22 (22.9)	74 (77.1)	43 (44.8)	53 (55.2)	47 (49.0)	49 (51.0)	16 (16.7)	80 (83.3)	53 (55.2)	43 (44.8)
	3	79 (51.0)	76 (49.0)	48 (31.0)	107 (69.0)	66 (42.6)	89 (57.4)	79 (51.0)	76 (49.0)	40 (25.8)	115 (74.2)	91 (58.7)	64 (41.3)
	4	13 (52.0)	12 (48.0)	10 (40.0)	15 (60.0)	9 (36.0)	16 (64.0)	15 (60.0)	10 (40.0)	6 (24.0)	19 (76.0)	19 (76.0)	6 (24.0)
p		.077		.001**		.272		.001**		.030*		.001**	
Major	humanities social	60 (53.1)	53 (46.9)	31 (27.4)	82 (72.6)	56 (49.6)	57 (50.4)	58 (51.3)	55 (48.7)	17 (15.0)	96 (85.0)	66 (58.4)	49 (41.6)
	natural medicines	56 (35.9)	100 (64.1)	38 (24.4)	118 (75.6)	57 (36.5)	99 (63.5)	59 (37.8)	97 (62.2)	35 (22.4)	121 (77.6)	82 (52.6)	74 (47.4)
	engineering art and physical	47 (51.1)	45 (48.9)	20 (21.7)	72 (78.3)	32 (34.8)	60 (65.2)	47 (51.1)	45 (48.9)	19 (20.7)	73 (79.3)	46 (50.0)	46 (50.0)
p		.008**		.638		.047*		.040*		.310		.451	

*p<.05, **p <.01, ***p <.001 by Chi-square test.

Table 2. The employment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Employment stress	Employment stress (subfactor)			
			Schoolwork	Characters	Family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Gender	Male	2.03±0.68	2.13±0.75	1.76±0.75	2.03±0.78	2.22±0.74
	Female	2.15±0.52	2.31±0.66	1.74±0.69	2.32±0.62	2.32±0.62
t/F(p)		*1.70(.090)*	*2.22(.028)**	*-0.31(.752)*	*2.24(.026)**	*1.40(.160)*
Age	19~21	2.04±0.53	2.17±0.66	1.65±0.68	2.13±0.66	2.21±0.63
	22~24	2.15±0.57	2.29±0.70	1.77±0.70	2.18±0.68	2.34±0.67
	≥25	2.20±0.72	2.39±0.77	2.00±0.87	2.17±0.84	2.22±0.72
t/F(p)		*1.50(.223)*	*1.50(.223)*	*2.80(.062)*	*0.16(.848)*	*1.61(.200)*
Grade	1	1.99±0.53	2.11±0.65	1.56±0.66	2.01±0.67	2.26±0.62
	2	2.13±0.62	2.36±0.78	1.73±0.73	2.16±0.72	2.28±0.68
	3	2.18±0.59	2.34±0.70	1.88±0.72	2.25±0.68	2.28±0.64
	4	2.13±0.54	2.21±0.63	1.76±0.68	2.19±0.64	2.35±0.69
t/F(p)		*1.91(.127)*	*2.37(.070)*	*3.00(.031)**	*1.90(.129)*	*0.33(.799)*
Major	humanities social	2.11±0.56	2.30±0.72	1.69±0.67	2.16±0.68	2.29±0.68
	natural medicines	2.15±0.55	2.26±0.65	1.79±0.70	2.20±0.67	2.34±0.63
	engineering art and physical	2.07±0.62	2.21±0.74	1.74±0.76	2.10±0.70	2.22±0.67
t/F(p)		*0.57(.561)*	*0.51(.598)*	*0.67(.511)*	*0.66(.514)*	*0.99(.371)*

*p<.05, **p <.01, ***p <.001 by t-test and one-way ANOVA

Table 3. Self-rated oral health according to perceived oral health employment stress.

Variable		Bleeding		Gingival swelling		TMJ disease		Ulcer		Gingival recession		Dentine hypersensitivity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perceived oral health	Good	75 (46.0)	132 (66.7)	40 (44.9)	167 (61.4)	79 (54.5)	128 (59.3)	88 (53.7)	119 (60.4)	23 (32.4)	184 (63.4)	93 (47.9)	114 (68.3)
	Bad	88 (54.0)	66 (33.3)	49 (55.1)	105 (38.6)	66 (45.5)	88 (40.7)	76 (46.3)	78 (39.6)	48 (67.6)	106 (36.6)	101 (52.1)	53 (31.7)
p		.000***		.009**		.387		0.202		.000***		.000***	
Employment stress		2.17±0.58	2.07±045	2.25±0.52	2.07±.058	2.15±0.54	2.09±0.59	2.18±0.55	2.06±0.58	2.21±0.54	2.09±0.58	2.18±0.57	2.04±0.57
p		1.796(.073)		2.503(.013)*		.829(.408)		1.970(.050)*		1.522(.129)		2.300(.022)*	

*p<.05, **p <.01, ***p <.001 by Chi-square test and t-test

Table 4.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self-rated oral health.

Variable		Employment stress		
		p-value	OR (95% CI)	OR (95% CI)a+
Bleeding	Yes	.074	1.39(0.96-2.00)	1.48(0.96-2.05)
	No(Ref)	1		
Gingival swelling	Yes	.014*	1.70(1.11-2.59)	1.56(0.98-2.46)
	No(Ref)	1		
TMJ disease	Yes	.407	1.16(0.81-1.68)	1.11(0.76-1.64)
	No(Ref)	1		
Ulcer	Yes	.050*	1.46(0.99-2.07)	1.42(0.98-2.11)
	No(Ref)	1		
Gingival recession	Yes	.129	1.41(0.90-2.22)	1.30(0.81-2.08)
	No(Ref)	1		
Dentine hypersensitivity	Yes	.032*	1.53(1.06-2.21)	1.44(0.98-2.11)
	No(Ref)	1		
perceived oral health	Bad	.031*	1.50(1.03-2.17)	1.48(1.02-2.18)
	Good(Ref)	1		

*p<.05, **p <.01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Odd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s estimated using logistic regression model adjust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Age,Grade,Major)

4. 고찰

스트레스는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존재하기에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인간이 적응해야 할 어떤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5].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적응은 청년실업이라는 장벽과 경제위기로 인하여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15]. 학생들에 취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준비하는 과정 중에 겪게 되는 부담감으로 인하여 신체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구강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취업스트레스와 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구강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모색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자가구강건강상태는 성별 간 차이에서는 잇몸이 붓거나 턱관절 장애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신과 조[15,17]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하였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신체반응에 대한 표현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연령에서 잇몸이 붓거나 출혈이 생기고 구강 안에 염증이 자주 생기며 잇몸이 내려가서 시린 경우는 연령이 증가될수록 높아졌다. 고등학교 졸업 후 흡연과 음주에 대한 노출이 더 많아지고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누적되어 나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학년에 따라 잇몸이 붓거나 출혈이 생기며 치아가 시리고 염증이 자주 생기는 경우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는데 홍과 김[5,11]의 연구결과와 유사했다. 이는 국가고시나 취업준비, 증가되는 학업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면역이 약화되면서 적은 수의 세균에도 구강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타액의 분비를 저하시켜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전공에서는 잇몸에 출혈이 생기거나 턱관절 장애 및 염증이 잘 생기는 경우는 인문사회계열 〉공학예체능계열〉 자연의학계로 나타났는데 보건과 관련된 지식을 있는 자연의학계에 비해 인문사회계의 학생들이 질환에 잘 걸린다는 우[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인문사회, 공학예체능의 경우 구강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과 취업스트레스는 여성이 나이가 증가할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고 학년은 3학년, 자연의학계열이 취업스트레스가 높았다. 취업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학업과 가족환경 스트레스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황,강,신[13-15]의 선행연구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4학년에 비해 3학년이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최[18]과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임[19]은 3학년이 4학년 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낮다고 했다. 이[20]의 결과에서 취업스트레스는 3학년은 취업을 위해 전공 지원을 잘했다고 할수록 4학년은 전공이 본인과 잘 일치할수록 스트레스가 낮다고 하였다. 이런 내용들로 보아 3학년이 대학생활 적응과 전공지원 불만족으로 취업스트레스가 높다고 사료된다. 또한 전문대의 보건계열은 졸업생이 3학년이며 국가고시와 취업 준비로 학업과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진 결과라고 판단된다.

주관적으로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하는 경우 자가구강건강상태는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우와 김[9,11]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는 객관적인 구강건강과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자가구강상태의 취업스트레스 평균 차이는 잇몸부종이 가장 높으며 임과 전[8,21]의 연구에서 잇몸 출혈과 여러 구강질환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취업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여 자가구강상태를 살펴 본 결과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잇몸부종에 대한 비교 위험도는 1.7배로 가장 높고 지각과민 1.53배, 궤양 1.46배, 치은퇴축 1.41배, 출혈 1.39배, 턱관절 장애 1.16배로 나타났다. 신과 구[14,22]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나 치은퇴축과 턱관절 장애, 출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박[23]은 스트레스 증가는 구강건강에 대한 부정적 증상을 야기하는데 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강내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비타민 섭취와 정기검진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과 최[24,25]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치주질환 및 구강점막 질환이 증가되며 대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해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여 건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20]는 스트레스는 생활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악순환이 되므로 관리를 통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고 하였다. 취업 스트레스는 취업준비 중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이 구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 할 수 있는 진로검사나 상담, 취업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적절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리능력을 높인다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취업스트레스가 자가구강건강상태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나 모든 대학생의 의견을 대변하기 어렵고 횡단면 자료만을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취업스트레스의 대처에 따른 구강 건강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안하는 바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자가구강상태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무작위로 추출 된 대학생 361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가구강상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잇몸부종과 턱관절 장애가 높고 22~24세는 출혈, 잇몸부종, 턱관절 장애, 궤양, 치은퇴축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사회계열이 출혈, 턱관절 장애, 궤양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는 여성이 높고 하위변인인 학업, 가족환경 스트레스는 여성이 높으며 성격 스트레스는 학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구강상태는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이 좋지 않은 경우 출혈, 잇몸부종, 치은퇴축, 지각과민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취업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잇몸부종과 궤양, 지각과민이 많이 나타나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자가 구강건강상태의 비교위험도는 잇몸부종 1.7배, 궤양 1.46배, 지각과민 1.53배,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이 나쁜 경우 비교위험도는 1.5배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후 잇몸부종 1.56배, 궤양 1.42배, 지각과민은 1.44배,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은 1.48배로 나타났다. 이에 취업 스트레스는 구강건강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취업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융합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구강건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REFERENCES

[1] Y. S. Lee. (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health habits in industrial workers. *Korean J Prev Med, 23(1),* 33-42.

[2] H. Selye. (197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 hill.

[3] S. Y. Bae & S. H. Kim. (2016).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self esteem, depression, hopelessness, locus of control and type a behavior pattern on job seeking stress among some college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323-333.
DOI : 10.14400/JDC.2016.14.12.323

[4] E. H. Lee. (2004). Lif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with structural equation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1),* 25-52.

[5] M. H. Hong. (2013). The influence of ocupational stress on dry mouth, temporomandibular dis rder and oral symptoms on workers. *J Korean Soc Dent Hyg., 13(1),* 136-145.
DOI : 10.13065/jksdh.2013.13.1.136

[6] J. W. Ryu, C. L. Yoon & J. M. Ahn. (2007). Application of stress hormones in saliva research of orofacial pain related with stress. *J Oral Med Pain, 32(2),* 201-210.

[7] M. G. Ji & M. R. Lee. (2019). The Convergence Relationship on Stress, Sugar Intake Behaviors, and Oral Health Status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4),* 118-129.
DOI : 10.22156/CS4SMB.2019.9.4.118

[8] H. R. Lim, S. Y. Jeon, K. H. Jo, A. I. Ju & S. H. Kim. (2016).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r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University Students. *J Dent Hyg Sci, 16(4),* 310-316.
DOI : 10.17135/jdhs.2016.16.4.310

[9] S. H. Woo & O. J. Ju. (2015). Stress and Oral Health Care in Non health-Related Majors. *J Dent Hyg Sci, 15(5),* 527-535.
DOI : 10.17135/jdhs.2015.15.5.527

[10] J. E. Kim et al. (2018). Influence of stress on the oral health andquality of life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8(5),* 797-806.
DOI : 10.13065/jksdh.20180068

[11] S. R. Kim & S. J. Han.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and Entrance Exam Stress Levels in High School Students. *J Dent Hyg Sci, 15(4),* 509-517
DOI : 10.17135/jdhs.2015.15.4.509

[12] D. I. Lee & S. J. Han. (2013). Factors Which Affect the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Workers. *J Dent Hyg Sci., 13(4),* 480-486.

[13] S. W. Hwang. (1998).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Univ. of Dong-A, Pusan.

[14] Y. R. Kang. (2006). *The Influence of Jobs seeking Stress on Their Career Maturity Dance Majoring Students.* Master's thesis. Univ. of Dan-kook, Seoul.

[15] S. H. Shin. (2014). Relationship between emplo ymen stress and oral symptoms in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4),* 19-26
DOI : 10.13065/jksdh.2014.14.04.519

[16] E. S. Bae & H. S. Kang. (2018).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family function, and job-seeking stress on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2(4),* 181-192.
DOI : 10.21184/jkeia.2018.6.12.4.181

[17] S. Y. Cho. (2015). *Study of stress and self-efficacy : Comparison between sex and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among high school student*,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on.

[18] S. H. Choi. & H. Y. Lee. (2013). Affecting Factors in Un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Focused on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2), 808-816*
DOI : 10.5392/JKCA.2013.13.12.808

[19] J. R. Lim. & S. Y. Kim. (2019).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and Stress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0),* 301-308.
DOI : 10.15207/JKCS.2019.10.10.301

[20] J. S. Lee. (2014). A Study on Job-Seeking Stress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Each Grade.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5,* 213-219.

[21] M. J. Jun. & J. S. Kim. (2017). The Converg ence Impact of Oral Health Behaviors, Health behaviors to Stress in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4),* 139-148.

[22] I. Y. Ku, K. H. Ka, E. H. Kim &, S, J. Moon.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elf-rated Oral Health Status of Police Officers in Some Rural Areas. *The Journal of Korean Island., 9(3),* 133-149.
DOI : 10.26840/JKI.29.3.133

[23] C. M. Park & H. S. Yoon. (2018). Perceived Oral Subjective Symptoms According to Stress Level of Adult Femal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9),* 837-846.

[24] S. B. Kim, J. Y. Jeong, C. Kim, Y. J. Kim & M. S. Park. (2008). Consideration for the importance of diseases associated with oral medicine by analyzing the dental cyber consultation. *Korean Acad Orofac Pain Oral Med, 33,* 312-322.

[25] J. S. Choi.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perception and oral health status. *J Korean Soc Dent Hyg. 14(4),* 555-561.
DOI : 10.13065/jksdh.2014.14.04.555

김 민 아(Min-A Kim) [정회원]

· 2009년 8월 :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구강보건학과 (보건학 석사)
· 2013년 8월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14년 8월 ~ 현재 : 송호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학, 융합
· E-Mail : uriaju@songho.ac.kr

김 효 진(Hyo-Jin Kim) [정회원]

· 2005년 8월 :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구강보건학과 (보건학 석사)
· 2012년 2월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14년 8월 ~ 현재 : 경동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치면세마, 융합
· E-Mail : i252hj@kduniv.ac.kr

이 연 경(Yeon-Kyoung Lee) [정회원]

· 2009년 8월 :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석사)
· 2013년 8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14년 1월 ~ 현재 : 송호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치면세마, 의료법규
· E-Mail : lyk0312@songho.ac.kr